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물을 먹기 전에는 우물을 판 사람을 잊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원욱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디지털 혁명 속 어떻게 선두주자가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이 3가지가 핵심인데, 그 중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너지, 특히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되면 결국 미래에너지는 '그린 수소 생산을 누가 저비용으로 빠른 속도로 해내느냐', '태양광의 효율성을 누가 높이느냐'가 신재생 분야에 있을 것이고, 원자력분야는 세계적인 성공을 했지만 여기서 SMR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마 가장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도전과제가 있으면 인공태양과 같은 ITER 프로젝트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가능성과 세계적인 노력, 빌게이츠의 저서 등을 보게 되면 SMR에 도전해볼만한 가치, 그리고 한국의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 된 것이라고 봅니다. 원전이나 탈원전이나는 명분론 보다 무엇이 현실인가, 그래서 정치와 과학이 만나면서 과학이 승리하는 세상을 저는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형 원자로 기술이 한국과 미국간의 전략적 협력의 한 내용이 되어 좀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상용화되어 성공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자리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MIF**